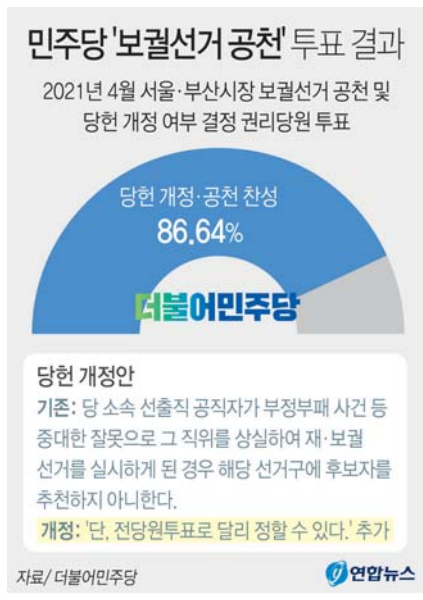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당헌개정 서울·부산시장 후보공천

권리당원 86.64% 당헌개정 찬성
"압도적 찬성률, 당원의지 표출"
국민의힘 "민주당, 정직성 상실"
야권, 투표결과에 비판 쏟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밀어붙이기로 하자 "정직하지 못하다", "성범죄 3차 가해자"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전체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

지난 3월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투표율 30%, 찬성률 74.1%), 5월 더불어시민당 합당 투표(투표율 22.5%, 찬성률 84.1%) 당시보다 높은 찬성률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 성추문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한 뒤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회의장 뒷걸개에 '후보 내지 말아야죠-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라는 문구를 적어넣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의 비위로 치러진 2015년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한 문재인 당시 대표의 발언을 소환, 민주당 스스로 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뒤집었다고 풍자한 것이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본인이 직접 공표했고 앞장서서 마련한 당헌의 뜻을 민주당이 철저히 부정하는 데 대해 말씀해달라"고, 성일종 비대위원도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머리 나쁜 타조처럼 당원 속에 숨었다"고 비유했다.

야권은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당원투표 결과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에 86%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3차 가해를 민주당 이름으로 86%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도둑질(성추행으로 생긴 공석)을 책임지기 위해 다시 도둑질(재보선 공천)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생산·소비·투자 증가…경제회복 청신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3분기 GDP 성장률 플러스 전환
코로나 2차 대유행속 진면목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지표를 보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며 "4분기도 경제반등 추세를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10월 소비심리지수와 기업경기지수가 11년 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등 경제심리가 개선된 것도 청신호"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국제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처럼 세계적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기적 같은 선방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어 가능했다. 10월의 눈부신 수출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에 힘쓰며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으로 나아간 것처럼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제조업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라면·김치 수출 불티… 농식품부 '짝꿍 홍보' 시너지

코로나19에 간편식 수요 확대 영향
올 라면 36%, 김치 39% 수출 증가

라면과 김치를 함께 홍보한 콘텐츠 /농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간편식 수요 증가 등으로 한국의 라면과 김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김치를 라면에 곁들여 먹는 식문화를 연계한 판촉과 홍보를 강화해 수출 확대폭 키우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인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짝꿍 식품인 라면과 김치 수출액이 올해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3%, 38.5% 증가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라면은 올해 4억5600만달러를 수출, 2015년 2억1900만달러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라면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매운 볶음면 등 매운 라면의 인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등 수상과 한류 확산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이유가 크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장기보관이 가능한 비상식품과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증가한 것도 수출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라면 업계도 최근 라면에 대한 인식이 '간식'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전환되고 수요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짜장라면, 맥앤치즈라면 등 다양한 신제품을 해외 현지에 선보이고 있고, 저염라면, 건면 등을 출시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들의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다.

라면과 잘 어울리는 짝꿍 식품인 김치 수출 역시 9월 누계 1억900만달러어치를 수출해 2012년 수출액인 1억600만달러를 넘어, 올해 3분기 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국가별 올해 9월 누계 수출액은 라면의 경우 중국(1억1687만달러), 미국(6156만달러), 일본(3681만달러), 태국(2081만달러), 대만(1932만달러) 순이고, 김치는 일본(5437만달러), 미국(1746만달러), 홍콩(560만달러), 대만(451만달러), 호주(436만달러) 순으로 많다.

/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추진 혁신정책 7건 사례 발표

농식품부, 오늘 '농식품 정책 콘서트'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개최되는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농업인과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정책콘서트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7건의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발표과제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62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것들이다.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한 사례, 타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서비스 방식을 변경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의 생동감을 고려하여 실시간 연계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 내일 재개

문화부, 최대 4만원 쿠폰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 20일 중단했던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재개 시점은 4일 오전 10시부터다.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개인당 1회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 내수 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투숙 날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4일~12월 23일까지로 제한된다.

쿠폰을 받으면 유효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 내 숙박 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한 경우엔 자동 무효처리되고 쿠폰 소진 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장이다. 3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원 이하 시) 20만장, 4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원 초과 시) 80만장이다.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 쿠폰을 받아 사용한 경우엔 재발급이 불가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곳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등록/신고)이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곳, 미등록 숙박시설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공사는 유관기관, 기업과 협업해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쿠폰 사용자에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준다.

/김현정 기자 hjk1@